

# 인문과학에 있어서의 과학적 설명

김 여 수  
(哲學科 副教授)

## I. 설명의 몇가지 유형

1.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또는 이론적 탐구과정에서 흔히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 또는 행위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묻는다. 이 「왜」에 대한 물음은 설명을 요구하는 상황을 조성한다. 그런데 「왜」라는 물음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성질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은 다음 몇가지 경우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 (1) 우리집 배수관은 어제밤 왜 터졌나?
- (2) 저 사람은 왜 뒷방에서 서성거리고 있나?
- (3) 그 사람은 왜 도둑질을 했나?
- (4) 나는 왜 그 도둑을 풀어주었나?

이러한 「왜」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각기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 (1') 어제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 (2') 도둑질을 하려고
- (3')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 (4')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정당하기 때문에

(1)에 대한 (1')는 하나의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이것은 전형적인 자연과학적 설명(scientific explanation)이다. (2)에 대한 (2')는 하나의 현상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유형설명(what-explanation)이라고도 할 수 있다. (3)에 대한 (3')는 한 행위의 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전형적인 목적적 설명(purposive explanation)이다. (4)에 대한 (4')는 한 행위의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근거제시적 설명(reason-giving explanation)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2. 험펠(C.G. Hempel)에 의하면 자연과학적 설명은 두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 하나는 설명되어야할 현상(a)과 관계있는 일련의 다른 현상들(b, c)이고 다른 하나는 이 현상들과 설명되어야할 현상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반법칙(L)이다. 이들 두 요소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도식이 성립한다.

1) D.N. Taylor, *Explanation and Meaning*, (Cambridge, 1970) pp.4-73 참고

- (1) 관련된 다른 현상들(선행조건)  $b, c, \dots, n$ 에 대한 진술;  
 배수관에 물이 차 있었다( $b$ ).  
 어제밤 기온이 영하 10도로 내려갔다( $c$ ).
- (2) 일반법칙  $L$ ;  
 물은 얼면 팽창한다.
- (3) 설명되어야 할 현상  $a$ ;  
 배수관이 터졌다.

위의 도식에서 (1)은 (3)의 원인이다. 그러나 (1)은 (3)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1)이 참 명제이고 (2)도 참 명제일 때 (3)도 역시 참 명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1)과 (2)의 연언은 (3)의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 (1), (2), (3)의 세 명제는 타당한 추론을 형성하며, 따라서 (1)과 (2)로 구성되는 설명항(explanans)과 (3)의 피설명항(explanandum)의 관계는 연역적 관계이다. 이러한 자연과학적 설명도식에 있어서 설명의 구조와 예측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왜냐하면 (1)과 (2)를 알고 있으면 (3)을 예측할 수 있고, (3)에 대한 설명은 (1)과 (2)를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설명과 예측은 다같이 특수한 현상들을 일반법칙에 포섭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험펠은 이러한 설명모형을 연역법칙적 설명모형(nomological deductive model of explanation)<sup>2)</sup>이라고 이름짓고 있으며, 설명과 예측에 있어서 모두 과학적 법칙과 이론을 포함하기 때문에 포괄법칙모형(covering-law model)이라고 불린다.

포괄법칙모형이 과학적 설명의 범형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명백하다. 과학의 주된 목표는 법칙과 이론을 공식화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과학적 탐구에 대한 지배적 이해에 따르면 과학적 행위의 두가지 중요한 목표는 관찰된 것에 대한 설명과 관찰되어 질 것에 대한 예측이며, 이것을 위해서 법칙과 이론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3. 어떤 종류의 「왜」 불음에 대하여는 그 불음의 대상이 어떤 유형의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줌으로써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설명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도둑이다.”라는 대답은 “그 사람은 왜 서성거리고 있나?”라는 물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리트머스 종이이다.”라는 대답은 “그 종이는 왜 붉은 색으로 변하고 있나?”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설명을 우리는 위에서 유형설명(what-explanation)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첫번째 예가 보여주는 유형설명은 두번째 예가 보여주는 유형설명과 구조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후자는 일종의 생략된 형태의 과학적 설명이다. 즉 문제의 종이가 리트머스 종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설명의 대상은 일반법칙을 포함하는 과학적 설명으로 포섭될 수 있게 된다. 과학이론은 흔히 이론적 대상의 특성에 대한 진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 참고 : C.G. Hempel,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in: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and Other Essay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Free Press, 1965,) pp. 335-347.

하나의 관찰된 현상을 그러한 과학이론과 연결시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우선 과학언어로 번역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물리적 대상의 작용을 원자이론에 의하여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의 원자구조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이렇게 볼 때, 유형설명이란 과학적 설명의 예비단계이며, 그 전체적 구조에 있어서는 과학적 설명의 생략된 형태이다.

그러나 위의 도둑의 예가 보여주고 있듯이 어떤 유형설명은 자연과학적 설명으로 그것을 체계성할 수도 없으며 일반적 법칙과는 무관하게 그 설명적 특성이 드러난다.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도둑이라는 유형설명은 나로 하여금 그의 행태에 대한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소리를 치면 놀라서 도망가리라는 그러나 그 도둑은 도망가는 대신 칼을 빼어들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는 내가 소리치면 필연적으로 놀라서 도망치리라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일반적 법칙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 설명과는 엄격하게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설명에 있어서 피설명항의 필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일반적 법칙의 정립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선량하고, 의지력이 약하고, 합리적이고 등등한 도둑은 큰 소리를 들으면 도망간다.”라는 일반법칙의 형식을 가진 일반화된 명제를 설명항의 일부로서 채택할 수도 있다. 사실상 정치학이나 사회학 또는 경제학에 있어서 체계이론적 설명은 이러한 일반화된 명제를 채택함으로써 과학적 설명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된 명제는 사실상 하나의 특수한 체계 또는 모형을 정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보편적 성격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유형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체계나 모형을 규정하는 이론들이 모두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계나 모델은 적어도 사회과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왜」 물음에 대한 해답의 또 하나의 유형으로서 과학적 설명보다 오랜 전통을 지닌 설명유형은 이른바 목적론적 설명이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재판과정, 역사, 소설, 또는 문학비평, 예술비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설명이다. 폰·리히트에 의하면 과학적 설명은 갈릴레오적 전통의 소산인데 반하여 목적론적 설명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sup>3)</sup>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목적론적 설명은 자연현상을 포함하는 모든 현상에 대한 인식방법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목적론적 설명은 의식적으로 목적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 대상들에 한정하며 제기된다. 폰·리히트에 의하면 목적론적 설명은 일종의 실천적 삼단논법의 구조를 갖는다.<sup>4)</sup>

- (1) A는 x를 원한다.
- (2) A는 y를 함으로써 x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 (3) 그러므로 A는 y를 한다.

3) Georg Henrik von Wright,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Cornell Univ. Press 1971), p. 2.

이와 유사하게 목적론적 모형에 있어서 예측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삼단논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 (1') A는  $x$ 를 원한다.
- (2') A는  $y$ 를 함으로써  $x$ 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 (3') 그러므로 A는  $y$ 를 할 것이다.

이들 이른바 실천적 삼단논법은 과학적 설명과 예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어느 경우에도 (1)과 (2)는 (3)을 함축하지 않는다. (1)과 (2)는 참 명제이면서도 (3)은 거짓 명제일 수 있으며, (1')와 (2')는 참 명제이면서도 (3')는 거짓 명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목적론적 설명에 있어서 설명항과 피설명항은 논리적 연역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5. 인간의 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왜」 물음에 대한 목적론적 설명은 과학적 설명과는 다른 논리적 구조를 가졌음이 위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가 앞의 도둑의 예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어떤 물음들은 단순한 목적이나 의도로 설명될 수 없다.

“왜 도둑을 풀어주었는가?”

위 물음에 대하여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어떤 행동도 정당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한다면 그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그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 된다. 또 “왜 공화당에 투표했나?”라는 물음에 대한 “공화당은 경제발전을 주장하기 때문에”라는 대답이라든지, “왜 「죄와 벌」을 읽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죄와 벌」은 인간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라는 대답은 똑같이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왜」 물음에 답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제시적 설명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 (1) 나는 (그는)  $y$ 유형의 행위는 정당(타당)하다고 믿고 있다.
- (2) 나는 (그는)  $x$ 는  $y$ 의 한 사례라고 믿는다.
- (3) 나는 (그는)  $x$ 는 정당하다고 믿는다.
- (4) 그러므로 나는 (그는)  $x$ 를 했다.

여기에서 (3)은 (1)과 (2)에서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명제이나 (4)는 (1), (2) (3)과는 논리적으로 무관한 명제이다. 즉 목적론적 설명의 경우와 같이 근거제시적 설명에 있어서도 설명항과 피설명항은 논리적 함축관계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

4) G.H. von Wright, 같은 책 p.96.

뜻, 공화당, 「죄와 벌」류의 대답을 하나의 설명으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의 행위나 신념을 가치평가에 연결시킴으로써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타당한 설명유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II. 과학적 설명과 인문과학

1.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또는 인문과학등 모든 학문은 일정한 존재영역에 대한 인식을 목표로 하는 지적 행위이다. 이러한 인식은 현상들에 대한 한갓된 포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식이란 포착된 현상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해명되었을 때 비로소 일련의 진술로 체계화되어 하나의 지식의 체계, 즉 학문영역을 이루게 된다. 설명은 이러한 해명의 방법이며, 동시에 인식의 체계적 표현이다. 그러면 방법으로서의 설명은 인식의 대상이 어떤 성질과 구조를 가졌느냐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사건들이 그 현상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같은 성질과 구조를 가진 것이라면 그 세계에 대한 지식의 확립은 단 한가지 종류의 설명으로 충분하다. 반대로 세계가 각기 다른 성질과 구조를 가진 존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지식확립의 방법도 또한 그만큼 다양하지 않을 수 없다.

2. 콩트(A. Comte)와 밀(J.S. Mill)을 위시하여 논리실증주의자들에 이르는 이른바 실증주의적 전통은 자연과학의 방법적 절차나 탐구의 논리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방법론적 일원론의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논리실증주의자들에 의하면, 자연과학이나 인문사회과학에 있어서의 목표는 동일하게 설명과 예측이며 그것은 개별적 현상을 일반법칙에 포섭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따라서 그것이 자연에 관한 것이든 인간과 사회에 관한 것이든, 과학적 탐구의 목표는 연역적 설명과 예측에 있어서 전체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법칙적 성격을 지닌 일반명제를 발견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일반법칙을 발견함으로써 하나의 현상은 그것이 어떻게 주어진 현상의 결과로 이 법칙에 따라 일어났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설명되어지며, 또 법칙과 일정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동일한 연역추리에 의하여 하나의 현상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과 예측 모형은 동시에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규정한다. 그 관계는 본질적으로 기술적이다. 즉, 일정한 일반법칙이 알려져 있고 또 일련의 선행조건을 조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일정한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논리실증주의자들의 가장 핵심적 논지 중의 하나는 어떤 사태를 유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는 과학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과학적 탐구는 가치중립적이라는 점이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위와 같은 방법론적 일원론은 현상론적 의미론과 상용론적 진리관에 근거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분석적 명제와 종합적 명제만이 의미있는 명

제라는 라이프니츠(W. Leibnitz)와 흄(D. Hume)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이른바 검증원리에 의하여 그 진리치가 경험적으로 결정되는 종합적 기술만이 사실에 대한 진술이고, 그러한 진술만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한다고 한다. 따라서 세계에 대한 올바른 진술체계는 감각적 경험에 의하여 주어진 것만이 그 기초가 될 수 있고, 특히 직접적 감각경험의 소여를 진술하는 일련의 기술명제 또는 관찰명제로부터 객관적 세계에 대한 진술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구성된 진술체계가 바로 자연과학의 진술체계이다. 그리고 이 진술체계의 참됨과 거짓됨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과연 감각적 경험이 보여주는 그대로의 세계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즉 언어와 세계의 상응여부이다.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에 의하면 언어와 세계는 마치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듯이 일대일의 동형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상응관계를 충실히 반영할 때 그 진술체계는 세계에 대한 참인 진술체계가 되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술체계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진술은 그것을 행태주의적으로 또는 물리주의적으로 경험과학화하여 진술될 수 있는 한에서 의미있는, 즉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진술들이 될 수 있다. 반면 신이나 실체와 같은 이른바 초현적인 대상이나, 좋음, 나쁨, 아름다움, 정의로움과 같은 가치들과 같이 현상론적 테두리 안으로 포섭될 수 없는 “대상”들은 의미 있는 진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들에 대한 진술은 그 참됨과 거짓됨이 가려질 수 없는 무의미한 것들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들은 참된 학문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철학을, 그 학문적 특성에 대한 전통적 이해와는 달리, 자연과학적 진술체계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는 분석적 진리만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논리학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과학의 논리로서의 철학의 진술들은 분석적 진리들이며 이들의 참됨과 거짓됨은 모순들과 같은 논리적 원칙들만이 밝혀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진술들의 진리치는 그것이 속하는 진술체계의 다른 진술들과의 논리적 관계, 즉 종합성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초험적 영역에 대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형이상학자, 신학자, 윤리학자, 미학자는 예술가와 같이 자신의 세계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밝히고 있을 뿐 어떤 인식적 의미가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자신의 행위의 성격에 대하여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과, 또 예술가에 필수적인 예술적 소양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대 서구사상의 맥락에서 볼 때 베버(M. Weber)에 의하여 주제화된 사실과 가치의 단절은 논리실증주의에서 절대화 된다.

3. 실증주의적 일원론은 근세이후 자연과학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진행되어온 지식의 분화과정의 역사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목적론적 설명은 자연현상을 포함하는 모든 현상에 대한 인식방법이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인문과학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학문분야를 지칭하는 the humanities 라는 영어표현은 키케로의 humanitas 개념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로마사회의 이상적 인간

형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었으며, 문법에 대한 연구, 고전에 대한 강독 및 해석등의 어문학적 수련으로부터 시작하여, 음악, 기하학, 천문학, 논리학, 윤리학, 물리학, 법률, 행정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것이었다. *humanitas*의 개념은 고대희랍인들이 이해했던 철학이라는 지적 행위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인간을 포괄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총칭하는 포괄적인 학문이었다. 키케로는 사실상 수사학이란 이름으로 대변되는 *humanitas*를 철학과 동일시하고 있다.<sup>5)</sup>

그런데 근세 이후, 자연현상에 대한 인과론적 접근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로 물리학, 화학, 생물학등의 자연과학들이 철학, 즉 인문과학으로부터 차례로 분가하여 독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물질세계를 다루는 자연과학은 인문과학의 영역에서 제외되면서, 자연과학과 자연과학이 아닌 다른 학문들의 총칭으로서의 인문과학 사이에는 명백한 대립관계가 형성된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연과학을 제외한 기타의 지적 탐구는 데카르트적인 정신-물질 이원론적 도식의 토대 위에 자연과학과의 명백한 자기 구분을 위한 재정비의 과정을 밟게 된다. 딜타이(W. Dilthey)는 이들 학문들을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이라는 이름하에 재정비하였으며, 리케르트(H. Rickert)는 이들을 통틀어 문화과학(Kulturwissenschaft)이라고<sup>6)</sup>, 그리고 빈델반트(W. Windelband)는 역사과학(Geschichtswissenschaft)이라고 불렀다. 이들 새로이 정비된 학문들의 선구자들은 한결같이 이들 학문들을 내용적으로 또는 방법론적으로 자연과학으로부터 명백하게 구분지음으로써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딜타이에 의하면,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자연은 그것을 일반법칙에 포섭함으로써 설명(Erklären) 할 수 있을 뿐이고, 반면 정신현상은 그것의 필연적 내면성 때문에 이해(Verstehen)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 명백한 방법론적 이원론을 주장했다. 반면 빈델만트는 자연과학의 목적이 일반법칙에 관한 지식을 얻는 데에 있다면 역사학의 목적은 개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확립하는 데에 있다는 내용적 구분을 토대로 하여, 자연과학은 법칙정립적(nomothetisch)이고, 역사학은 개체기술적(idiographisch)이라고 했다. 법칙정립적 기능은 개별적 자연현상을 일반법칙에 포섭시킴으로써 설명하는 데에 있고, 개체기술적 기능은 개별적, 역사적 현상을 그 고유한 특수성 속에서 이해하는 데에 있다고 그는 보았다.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이 목표로 하고 있는 두가지 종류의 지식은 단순히 그 포착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성격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고 그는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빈델만트가 주장했듯이 정신과학이 개체기술적이라고 한다면, 정신과학이 목표로 하는 지식은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신과학은 개체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정립의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진리는 특수

5) Otto A. Bird, *Cultures in Conflict*, (Notre Dame, 1968), p. 12.

6) Heinrich Rickert, *Kulturwissenschaft und Naturwissenschaft*, (Tübingen, 1975)

적 진리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보편적 진리가 함축하는 지식은 무제한수의 특수적 진리들의 지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적 개체의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과학이 제공하는 지식은 보편성을 그 특성으로 하는 자연과학적 지식에 비하여 열등한 것일 수밖에 없다. 빈델반트의 총장취임연설의 제목 「역사와 자연과학(Geschichte und Naturwissenschaft)」이 보여주듯이 법치정립성을 모든 과학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한다면, 정신과학이라는 이름조차 부당한 것이 된다.

정신과학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적 탐구도 자연과학이 채택하고 있는 경험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인식의 대두와 함께 지식의 판도는 또 한차례 바뀌게 된다. 경험과학적 방법에 의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연구가 단순한 작업 가설의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 결과를 산출하고 우리의 지식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정신과학을 구성하던 개별학문 중에서<sup>7)</sup> 인간과 사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들은 정신과학으로부터 분가하여 사회과학이라는 독자적 학문영역을 형성하게 된다.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자율성과 사회과학이 제공하는 지식의 보편성의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과학이 오늘날의 지식의 지도위에 명백하고도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4. 인문과학에 대한 자연과학의 도진은 여기에 미무른 것이 아니다. 극적으로 축소된 인문과학의 영역 안에서도 인문과학에 종사하는 많은 학자들은 그들의 학문적 탐구에 자연과학적 방법을 도입하고자 했다. 슐레겔(F. Schlegel)은 이미 19세기초에 언어와 언어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를 경험적 법칙으로 포착하고자하는 비교문법의 방법을 통하여 언어의 생산과정을 밝히고자 했다. 언어학의 목적과 방법을 자연과학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경향은 오늘에 있어서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회언어학의 입장에 따르면 문법은 행동주의적 선리학과 인류학적 사회학의 한 부분으로 환원되어 언어사용의 질적 차이는 전적으로 사회조건의 부수현상으로 설명된다. 문학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뤼느(H. Taine)는 영국문학사를 민족, 환경 및 시대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설명하고자 한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문학비평을 언어학과 심리학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일부 비평가들의 노력에서 계속되고 있다. 역사학의 경우 객관적 역사서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랑케(Leopold von Ranke)의 공헌과 지속적인 영향력은 여기서 재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연과학적 방법의 압도적 세력 속에서 「인문과학」은 그 포괄성과 그 본래적 구상에서 강하게 작용했던 규범적 맥락과 실천적 지향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

7) 달타이는 현상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정신과학 속에 역사, 경제학, 법학, 정치학, 종교학, 문학, 건축학, 음악, 그리고 심리학을 포함시키고 있다. Wilhelm Dilthey, "Abgrenzung der Geisteswissenschaften," in: Gesammelte Schriften, VII, S. 79.

문과학의 위기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 포괄성을 상실한 인문과학은 개별학문의 체계속으로 편입되어, “자연과학도 사회과학도 아닌” 성격미상의 학문영역으로 전락하였으며, 인간성 성취의 수단으로 출발한 「인문과학」은 그 자체 이외의 아무런 목적도 없는 많은 개별학문 중의 하나로 안주하고자 한다.

오늘날 인문과학을 구성하는 핵심분야로서의 철학이나, 역사 또는 문학은 과학과정에서의 낙제생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 Ⅲ. 실증주의적 일원론

1. 실증주의적 일원론의 핵심은 검증원리이다. 그런데 이 원리는 두가지 면에서 자기부정적인 명제다. 첫째로 유의미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 명제 자체는 분석적 명제도 아니고 또 감각적 경험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는 종합적 명제도 아니다. 그리고 검증원리는 과학적 인식방법과 과학적 설명방법이 세계인식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보았듯이 과학적 설명과 예측은 진칭명제로 표현되는 일반법칙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과학적 탐구의 목표는 일반명제의 발견에 있다. 그런데 검증원리는 모든 진칭명제들, 따라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 있어서 일반법칙을 나타내는 명제들을 인식적 의미를 지닌 언어의 영역으로부터 배제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유한수의 관찰명제의 집합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일반명제를 논리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관찰명제의 수는 원칙적으로 무한하며, 인간의 관찰능력은 원칙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증주의적 의미기준이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논리적 문제점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이 과학을 보는 시각의 바탕을 이루었던 일련의 인식론적, 방법론적 전제들의 문제점이 노출됨으로써 더욱 확대된다. 위에서 이미 보았듯이 실증주의적 과학관의 인식론적 기초는 현상론이다. 물리적 세계에 대한 진술은 사실은 감각경험에 대한 생략된 진술이며, 모든 과학적 이론은 다음과 같은 가언적 형식을 갖는다:  $x$  행위를 수행하면  $y$  감각경험을 갖게될 것이다. 즉 모든 의미있는 명제는 남김없이 감각경험에 관한 명제로 환원 또는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원적 번역의 방법은 많은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사람에게 의해서 지적되었다.<sup>8)</sup> 특히 러셀(B. Russell)에 의하여 철학적 문제에 대한 환원적 분석방법이 제시된 후 논리실증주의의 전성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30여년간 수학이나 논리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전의 만족스러운 환원적 분석도 제시되지 못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번역항으로서의 기본관찰명제의 인식론적 성격규정은 모두가 유아론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는 인식은 많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환원적 분석의 가능성에 대한

8) 참고: 필자의 「환원적 분석」, 철학, 제13집(1979) pp.43-57.

회의적 태도를 품게 하였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의 과학주의적 일원론은 그 방법론적 전제가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 들어남으로써 보다 큰 타격을 받게 된다. 19세기 중엽 밀(J.S. Mill)의 「논리학의 체계(A System of Logic)」가 발간된 이후 1950년 카르납(R. Carnap)의 개연성의 논리적 기초(Logical Foundations of Probability)」가 나올 때까지 많은 과학철학자들은 귀납적 논리가 바로 과학적 방법의 기초가 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1879년 프레게(G. Frege)가 그의 기호 체계(Begriffsschrift)에서 연역적 논리를 형식화하며 일차 논리학의 모든 타당한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는 계산법을 제시한 이후, 이들의 노력은 귀납법적 논리학의 형식화에 성공하는 경우 자연과학적 명제의 진리를 보장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방법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연성의 논리학은 실현될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귀납논리학의 상당부분을 형식화하는데 성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설의 확인과정에서 과학자의 세계에 대한 주관적 믿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귀납적 논리가 자연과학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불가피하게 수학적으로 공식화될 수 있는 형식적 부분과 과학자의 세계에 대한 사실적이고도 유동적인 신념들과 방법론적 전제 및 의도들로 구성되는 비형식적 부분을 포함하게 되며, 따라서 자연과학의 사실적 내용과 과학의 방법을 명백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sup>9)</sup> 즉 연역논리와는 다른 순수형식적 과학의 방법의 확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기에 이른 것이다.

2. 자연과학적 방법의 한 부분으로 과학자들의 세계에 대한 주관적 신념들로 구성되는 비형식적 부분이 불가피하게 포함된다는 인식은 실증주의 과학관의 기본명제의 하나인 사실과 가치의 절대적 구분에 대한 문제를 새로이 제기한다. 모든 과학적 탐구의 과정에서 적어도 하나의 가치가 전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졌다. 하나의 과학적 설명을 세계에 대한 참된 인식을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설명은 몇가지의 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그것은 정합적이어야 하고, 도구적 효용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과학적 설명은 위에서 논의된 헐렌의 포괄법칙적 설명모형을 전적으로 충족시키면서도, 하나의 자연과학적 설명으로서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즉 그 설명이 자연과학의 기본적 관심을 충족하지 못할 때 그러하다. 퍼트남이 지적하고 있듯이 설명은 관심상대적인 개념이다.<sup>10)</sup>

자연과학적 설명을 포함하여 모든 설명은 적합성의 공간<sup>11)</sup>을 수반한다. “너는 왜 여기서 도둑질을 했느냐?”라고 물음을 다른 도둑이 했을 때와, 목사가 물었을 때, 그 대답은 서

9) 참고 : Hilary Putnam,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1981) pp.125-126.

10) H. Putnam, Meaning and Knowledge, Lecture III, in: *Meaning and the Moral Sciences*, (Boston, 1979), p. 41.

11) 같은 책, p. 43.

로 다른 적합성의 공간을 갖는다. “여기가 바로 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도둑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있겠지만, 목사의 물음의 배경을 이루는 관심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의 물음이 제기되는 출발점으로서의 관심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설명은 쓸모없는 것으로 배제된다.

이러한 적합성에서의 물음은 자연과학적 설명을 포함하는 모든 설명이 각기 수 없이 많은 관심과 가치로 구성되는 설명의 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자연과학의 포괄적 진술체계는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설명의 공간, 즉 과학적 진술체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관심과 가치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논의되었던 귀납논리의 완전한 형식화를 위한 노력은 바로 이러한 요청에 좌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학적 진술체계는 그 필수적 부분으로 목적론적 설명과 근거제시적 설명을 동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과학적 진술체계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도와 관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트남의 표현을 빌린다면 과학철학이란 과학에 대한 규범적 기술이다.<sup>12)</sup>

#### IV. 인문과학과 상대주의

1. 자연과학적 설명에 있어서 사실과 가치가 불가분적으로 상호연관되어 있다는 통찰은 사실과 이론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며, 이 문제는 다시 실증주의적 과학관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사실과 이론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실증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은 오늘날 과학철학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증주의가 견제하고 있는 현상론적 인식론에 의하면 우리는 감각적 경험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들을 포착한다. 우리들 자신이 만들어낸 사유의 도구로서의 이론은 이들 객관적 사실들을 설명하는 일을 하며, 그 설명의 타당성여부, 즉 이론의 참됨과 거짓됨은 사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그 경험이 이론의 참됨과 거짓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우선 명제의 형식으로 표현되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경험이 명제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경험된 내용은 변질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경험은 우리의 과거의 정현이나 관찰과의 연관 속에서 일반개념에 의하여 분류되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찰과 경험은 이렇게 해석되었을 때 비로소 묘사될 수 있고, 이렇게 묘사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실과 사실에 대한 설명모형으로서의 이론은 확연하게 구분될 수 없으며 설명의 참됨과 거짓됨을 감각적 경험에 의하여 포착된 사실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생각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ㄷ단(N. Goodman)의 표현을 빌면 “사실이란 자그마한

12) 같은 책, p.47.

이론들이고, 참인 이론은 콤팩한 사실이다.”<sup>13)</sup> 그렇다면 하나의 현상에 대하여 상충되는 진술들이 있을때, 그리고 한 현상에 대한 진술이 우리의 전체적 진술체계와 충돌하는 경우, 그것들의 참위과 거짓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러한 현상은 자연과학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경험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우리는 흔히 전체적 진술체계를 우선적으로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정합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2. 콰인(W.V.O. Quine)은 우리의 경험에 내재하는 애매성에 착안하여, 모든 관찰명제는 개별적으로 그것에 상응하는 한 토박의 감각적 경험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다는 실증주의적 과학관의 환원주의적 진제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세계에 대한 어떤 진술이 우리의 감각적 경험과 충돌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하나의 개별적 진술로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전체적 체계로서 충돌하는 것이다. 따라서 콰인은 우리의 감각적 경험이 어떤 것이든 전체적 지식체계를 적절하게 수정하면 어떤 진술도 참인 진술이 될 수 있다는 전체론적 경험론의 입장을 택한다.<sup>14)</sup> 그는 또한 원초적 번역의 불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진술과 진술되어지는 것 사이에는 근원적인 불확정성과 상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sup>15)</sup>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부족언어 L을 번역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우리는 그 언어 L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할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근거로 하여 우리말에서 그것과 상응하는 표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반응을 토대로 하여 번역을 해나가면서도, 우리가 세계에 대하여 어떤 진제를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번역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갑이라는 번역자는 세계가 산신령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는 신화적 세계관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자. L의 사용자가 “꿈땅”하고 말했을 때, 갑은 그의 반응을 관찰하고 그 표현을 천둥번개와 관련하여 판단하고 “꿈땅”을 “산신령이 노하셨다”로 번역한다. 반면 물리적 인과론의 세계관을 지닌 을이라는 사람은 동일한 말을 “대기에서 전류가 맞부딪쳤다”라고 번역한다. 즉 우리가 세계에 대하여 어떠한 진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언어 L의 표현에 대하여 상반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번역이 가능하다. 그중 어떤 번역이 옳은가에 대한 물음은 언어 L에 대한 물음이 아니고, 번역자가 번역작업에 지니고 들어가는 세계에 대한 인식체계의 성격에 대한 물음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우리가 세계를 어떠한 것으로 보느냐하는 전체적 인식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어떤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그 전체적 인식체계에 의존한다.

언어와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확정성과 상대성에 대한 인식은, 언어행위와 인식행

13) N. Goodman, *Ways of Worldmaking*, (Hackett, 1978), p.97.

14) W.V.O. Quine, "Two Dogmas of Empiricism," in: Rosenberg/Travis (eds.),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Englewood Cliffs, 1971), pp.78-81.

15) W.V.O. Quine, "Ontological Relativity," in: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Columbia, 1967), pp.28-68.

위를 포함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일련의 전체와 가치들로 구성되는 문화, 즉 특정한 삶의 양식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의 견해와 연결된다. 내가 세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 나는 필연적으로 나의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영향을 받게 되며, 그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 언어가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문화전통 전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윈치(P. Winch)는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견해를 인문사회과학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옹호하는 이론으로 발전시킨다. 사회과학자는 그가 포착하는 행태적 자료를 사회적 사실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행태적 자료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윈치에 의하면, 사회과학자는 그가 연구하는 대상의 사회적 세계, 즉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일련의 개념과 규칙들에 의하여 이들 자료들을 기술함으로써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행위에 대한 기술과 설명은 그 행위자 자신들의 삶의 양식을 구성하는 개념적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는 자연과학자와는 달리 그 탐구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외자가 될 수 없다. 그는 탐구대상의 삶의 양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윈치에 의하면 이러한 참여의 능력이 이해(Verstehen)의 핵심이다.<sup>16)</sup>

3. 실증주의적 과학관의 붕괴를 촉진한 것은 쿤(T. Kuhn)의 과학사에 관한 연구결과이다.<sup>17)</sup> 쿤에 의하면 자연과학적 탐구에 있어서의 출발점은 직접적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에 의하여 올바로 반성되지 않은 채 받아들여지는, 그 시대의 과학자들에 의하여 비교적 만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법칙, 이론, 실험에 사용되는 방법과 도구 등으로 구성되는 과학의 범형, 즉 패러다임(paradigm)<sup>18)</sup>이다. 이 범형은 한 시대의 과학자들에게 그들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그 범형과 무관한, 그것으로부터 독립하여 포착되는 객관적 경험이란 있을 수 없다. 개별적 경험들이 그 틀 속에서 만족스럽게 설명이 되지 않을 경우, 과학자들은 그 말쑥꾸리기 경험을 그 범형 속에 수용해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범형 속에 수용될 수 없는 개별적 경험과 문제들이 누적되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그 범형은 세계인식의 모형으로서의 그 유용성을 잃게 되며, 이 단계에 이르면 낡은 범형을 새로운 범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혁명적 상황이 조성된다. 범형의 대체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혁명은 완성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쿤은 과학적 혁명의 대표적 예로서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이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플로지스톤 화학으로 부터 현대화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들고 있다. 이러한 예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과학적 지식은 누적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에서 포괄적인 설명력을 가진 새로운 설명모형이 낡은 모형을 선택적으로 대체하

16) 참고: P. Winch, *The Idea of a Social Science*, (London, 1958).

17) T.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1962).

18) 같은책, p. 10.

는 혁명적 과정을 통하여 발전해 간다. 따라서 낡은 범형과 새로운 범형 사이에는 근본적 단절이 있다. 왜냐하면 새 범형의 개념들은 낡은 범형의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낡은 범형으로부터 새로운 범형으로의 이전은 종교적 진향과도 비교될 수 있다. 낡은 범형의 추종자와 새로운 범형의 추종자 사이에는 어떤 합리적 대화도 불가능하다.

4. 쿤을 위시하여 헨슨(N. Hanson)<sup>19)</sup>, 파이어아벤트(P. Feyerabend)<sup>20)</sup> 등에 의하여 대변되는 이른바 역사-사회학적(historic-sociological)<sup>21)</sup> 과학철학이 안고 있는 부담은 과학적 설명의 설명력을 궁극적으로 기적이나 우연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사실과 이론의 상호의존성의 명제는, 모든 과학적 진술의 참됨과 거짓됨은 그것이 진술하는 객관적 대상이나 사실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전체적 인식체제를 구성하는 다른 명제들과의 정합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론을 함축한다는 것을 우리는 위에서 보았다. 만일 전자가 없고, DNA분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자이론이나 DNA이론들이 우리로 하여금 일련의 관찰될 수 있는 현상들을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하나의 기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sup>22)</sup> 어떤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낡은 범형을 새로운 범형으로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냐는 물음에 대하여, 쿤은 '과학자들의 집단 안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라는 극히 형식적이고 순환적인 대답을 한다. 그리고 그는 과학적 혁명은 과학자 집단이 미래의 과학을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였을 때 완성된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적절한 방법"의 선택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sup>23)</sup>

새 범형의 이론이나 개념은 낡은 범형의 그것들과 전혀 비교될 수 없다는 이른바 비통약성 명제(incommensurability thesis)는 번역가능성의 각도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 명제를 받아들일 때,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번역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비록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일지라도 역사적으로 상이한 시대의 언어들—예를 들면 17세기 한국어와 20세기 한국어는 서로 다른 범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될 수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게 된다. 이 논리를 극단으로 밀고 가면 다른 언어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다른 생명체가 내는 소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생명체는 동물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 즉 사람으로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9) N. Hanson, *Observation and Explanation*, (London, 1972).

20) P. Feyerabend, *Against Method*, (London, 1975).

21) C. Hempel, "Scientific Rationality: Normative vs. Descriptive Construals" in: *Proceedings of the 3rd International Wittgenstein Symposium*, (Vienna, 1979), p. 29.

22) 참고 : H. Putnam, "Meaning and Knowledge, Lecture II." in: *Meaning and the Moral Sciences*, p. 19.

23) T. Kuhn, 위의 책, p. 171.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상대주의 과학관의 기저에는 사실과 이론의 절대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주장이 깔려 있다. 그런데 이미 지적되었듯이 이론이란 우리들 자신이 만들어낸 관념들이며 사유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의 작은 이론이라는 위에서 확인된 명제가 타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도 하나의 관념적 대상이 된다. 이러한 입장은 필연적으로 모든 형태의 상대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즉 '참이라는 것'과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무엇을 진술하는 행위와 단순히 소리를 내는 행위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진리 또는 객관성의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과학철학은 그 구체적 형태가 어떠한 것이든지 퍼트남이 지적한대로, 일종의 정신적 자살행위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sup>24)</sup>

## V. 인문과학과 규제이념으로서의 진리

1. 우리는 III장과 IV장에서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의 영역을 포함하는 세계인식의 방법으로서의 과학적 설명의 일원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객관주의적 과학철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과 함께 이를 부정하는 상대주의적 과학철학이 드러내는 난점들을 검토했다. 이러한 논의가 보여주는 것은 명백하다. 한편으로, 자연과학을 포함하는 모든 학문분야에 있어서의 설명은 일정한 관심과 가치로 구성되는 설명의 공간, 즉 적합성의 공간을 수반한다. 따라서 모든 학문적 진술체계는 그 필수적 부분으로 목적론적 설명과 근거제시적 설명을 동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연과학도 물론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른 한편, 인문과학을 포함하는 모든 학문분야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인 한 그것을 참인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객관성의 준거를 진제로 한다. 우리는 같은 문화권의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 소속된 사람들의 말이나, 신념 또는 욕망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고 이해한다.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사이에 적어도 일정한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특정 인식론에 매혹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가 참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즉 우리는 객관성의 기준으로서의 진리와 허위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대한 인식과 사유 그리고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여주는 하나의 전제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에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와 허위는 원칙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믿는다.

2. 모든 지적 행위의 궁극적 목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리는 하나의 규제이념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명백하게 설명되지 않는 객관론적 상응론이 깔려 있다. 칸트는 정신으로부터 독립된 객관적 실재가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으며, 그것을 누메논(noumenon) 또

24) H. Putnam, *Reason, Truth and History*, p. 122.

는 물자체(Ding-an-sich)라고 불렀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되었듯이 객관적 실재에 대한 기술은 일정한 이론과 개념의 체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콰인과 퍼트남<sup>25)</sup>은 어떤 언어체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존재론적 물음에 대한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언어철학적 논의를 통하여 칸트가 지적하고 있는 인간의 인식능력을 규정하는 속명적 유한성의 성격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존재론적 물음에 대한 대답이 어떤 언어체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선택된 언어체계로 부터 독립된 「그 자체로서의」 객관적 실재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다. 또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실재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진리는 하나의 궁극적 목표로서, 하나의 한계이념, 또는 규제이념으로서 우리의 지적 행위를 규제한다. 포퍼<sup>26)</sup>는 규제이념으로서의 진리개념을 어두운 굴을 뚫고 가는 사람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그 사람은 어둠속에서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목적지가 어디엔가 있다는 것을 믿고 끈질기게 진진한다. 그리고 그는 가끔 굴의 벽에 부딪쳐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충격이 이끄는 바에 따라 그의 방향을 세로히 설정한다. 모든 학문은 진리의 탐구와 그 확보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가 어디엔가 있다는 것만을 알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진리에 대한 탐구는 오로지 그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재와의 대결을 인도자로 삼고 끊임 없이 진진하는 것이다.

3. 오늘날 인문과학을 구성하는 핵심분야로서의 철학이나 역사 또는 문학을 하나의 독자적 탐구영역으로 묶어주는 특성은 무엇인가?

언어와 언어사용을 규제하는 모든 학문은 그 초창기 부터 인문과학의 중핵을 이루어 왔다. 키케로에 의하면 언어야말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인간성의 핵심이며, 언어사용의 통달이야말로 한 인간이 갖추어야 할 유익한 기에이며 동시에 최고의 덕목이다. 이러한 통찰은 현대 언어학에 의하여 다시 확인되고 있다. 현대철학이 도구로 삼고 있는 개념적 논리적 분석작업은 언어를 통한 언어의 분석으로써 행하여지는 칠두칠미한 언어적 작업이다. 또한 오랜 세월을 두고 개발되고 완성된 인문과학의 방법들은 모두가 언어를 통한 작업들이다. 우선 문법, 운율학, 수사학, 일반논리학, 문헌비평 등 언어적 기술과 학문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업적들을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상징적 매개체들에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철학적 체계, 과학적 체계, 종교적 체계를 구성하는 관념과 사상에 대한 음미와 분석도 언어에 대한 언어적 작업이다. 그리고 문학과 음악 미술 등의 미적 구조를 파악하고 음미하는 비평도 언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작업이다. 금세기에도 들

25) 참고 : W.V.O. Quine, *Word and Object*, (Cambridge, 1960), Chapter 2. H. Putnam, *Reason, Truth and History*, Chapter 2.

26) K. Popper, "Tuth, Rationality and the Growth of Knowledge". in: *Conjectures and Refutations*, (N.Y., 1963), p. 224.

어서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언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미단 인문과학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언어와 지식, 언어와 세계, 언어와 인간간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밝혀내는 일은 인문과학의 전통적 관심의 연장이고 확대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인문과학은 여러가지 언어적 학문과 언어적 방법과 밀접히 관련되어 왔다. 그러나 그들이 인문과학 그 자체와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인문과학으로 부터 그 내용을 박탈하게 되기 때문이다. 말의 힘이 인간을 다른 존재로부터 구분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인간을 인간적(humane)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인문과학을 구성하는 학문으로서의 문학, 역사, 철학은 전통적으로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심오한 관심사들-삶, 죽음, 즐거움, 고통, 의무, 행복, 운명, 정의, 소외, 고독-을 주제로 삼아왔다. 그런데 이들 관심사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체험될 수 있는 것들이며, 또한 모든 개별학문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서도 이들에 의하여 주제화되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나 모든 학문과 사유는 바로 이들 원초적 체험에서부터 시작된다. 인문과학은 전통적으로 이들 원초적 체험의 영역에 속하는 관심사들을 주제화하여 다루어 왔으며 이 원초적 체험의 영역을 외면하는 인문과학은 내용없는 빈 껍데기가 아닐 수 없다.

인문과학에 있어서의 인간의 원초적 체험의 중요성은 가치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인간이 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치의 문제와 맞부딪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생각할 수 없으며, 그는 명시적으로 또는 정서적 행위나 신념을 통하여 끊임없이 가치판단을 하고 있다. 문학이나 예술, 보다 정확히 말해서 문학비평이나 예술비평은 명시적 가치판단과 그 판단을 뒷받침해주는 논거로 구성된 진술체계이다. 그리고 철학, 특히 규범적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와 제반 사회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에 대한 문제를 그 핵심적 관심사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지적 전통은 넓은 의미에서의 존재의 영역을 자인, 인간과 사회, 그리고 가치의 세계로 크게 구분한다.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자연과학의 탐구영역이 자연이고, 사회과학의 탐구영역이 인간과 사회라면, 인문과학의 영역은 인간의 사회 및 문화생활에 있어서의 가치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사회과학에서도 가치의 세계가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문과학에 있어서의 가치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서의 인간의 행위를 인도하고 규제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규범으로서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다.

4. 위와 같은 논의가 인문과학적 진술체계의 논리적 성격규정에 대하여 갖는 의미는 명백하다. 방법론적 일원론의 오류는 인식과 대상사이에 일대일의 명백한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오만스러운 생각에 있다면, 방법론적 이원론의 첫점은 모든 학문적 진술이 선택된 특정 이론이나 체계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인식적 제약을 간과한데 있다고 할 수 있

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사이에는 어떤 원칙적 단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 학문들의 진술체계는 모두가 일련의 이론들로 구성된 체계나 모형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 분야들을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오직 그 모형을 구성하는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포괄성의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지적 탐구가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그 탐구대상에 대한 보편적 진리의 발견이라고 한다면, 인문과학은 과학적 설명을 보다 광범위하게 그 설명체계 속으로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과학적 진술체계의 「상대성」에 대한 인식과 인문과학적 진술체계의 「재관성」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인간적 인식상황의 표리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 《Resume》

## Scientific Explan In The Humanities

Yersu Kim

This paper is an attempt to throw light on the role and status of scientific explanation within the system of the humanistic disciplines. The main arguments revolve around a critical examination of positivistic monism which sees in the nomological-deductive model of explanation (interpreted broadly so as to include the probabilistic) the sole legitimate mode of explanation in all systematic cognitive endeavors.

Science is an intellectual activity that aims at knowledge of a given realm of phenomena. Such a knowledge, when systematized into a body of statements which explain the phenomena in question, constitutes a particular branch of science, whether it is a natural, social or humanistic one. Explanation is both the method of arriving at, as well as the systematic expression of such a knowledge. Explanation as the method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character and structure of the objects to be explained. If the phenomena are of essentially the same character and structure despite their apparent differences, the one single mode of explanation would suffice for the construction of knowledge. If on the other hand they are fundamentally different character and structure, modes of explanation cannot but be diverse.

The positivistic tradition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is the prime example of methodological monism. Whether in natural, social or humanistic sciences, the aim of inquiry is the same, namely, explanation and prediction. This aim is to be achieved by subsuming individual phenomena under general laws. Thus the aim of all inquiry is to establish those nomological universal statements which can serve as the premisses in the deductive explanation and prediction.

The methodological monism is buttressed by the phenomenalist theory of meaning. According to this view, a system of scientific statements consists solely of observation sentences which record the experientially given and their logical constructions. All other statements, when not analytic, are devoid of literal significance. The statements of the social and humanistic sciences are meaningful in so far as they can be translated into behavioristic or physicalistic terms. Those "objects" —such as values, transcendent objects such as gods and substances— which cannot be translated into those terms, are not objects

of legitimate scientific inquiry. Bifurcation of fact and value, thematized for the first time by Max Weber, becomes absolute in logical positivism.

Our intellectual tradition sees the world as consisting of three distinct realms: nature, man and society, and values. Natural, social and humanistic sciences deal with these realms respectively. Those disciplines which constitute the core of the humanistic sciences—philosophy, history and literature—have been characterized by the thematization of the most fundamental concerns of human life—life and death, pleasure and pain, duty and rights, fate and freedom. These primordial experiences of man are inextricably bound up with the questions of value. The values which constitute the basic concern of the humanistic sciences are those which serve as the basis for guiding and controlling the affairs of men both as individuals and groups.

Does the discontinuity between fact and value made absolute by logical positivism entail a denial of the possibility of the humanistic disciplines as systematic cognitive endeavors? Is the discontinuity in the cognitive character of the natural sciences and the humanistic sciences acceptable in the form presented by the positivistic tradition?

Our analysis of the logical structure of methodological monism reveals the fact that the system of explanations in the natural sciences presupposes an "explanation space" that consists of innumerable interests and value assumptions. The system contains as an essential component a series of value statements, describing intentions, interests and presuppositions of the inquiry. They together serve to render a given system of knowledge relevant and perspicuous.

Interdependence of fact and value thus established however leads to the difficult problems of relativism, the foremost among them being that relativism is incapable of distinguishing between "true" and "thinking it true". If no such distinction is possible, then an act of asserting and that of making noise become indistinguishable. A view of knowledge which cannot make this distinction forfeits all claim to serious consideration. An analysis of relativism in fact shows it to be self-refuting. All systems of knowledge, including those of the humanistic disciplines, must be based on some notion of objectivity, in so far as they can be understood and communicated. The fact that we do in fact speak of truth and falsity is an indication that we accept them as the preconditions for knowing and thinking about the world. Truth in this view is a regulative idea in the Kantian sense.

All scientific statement is a response to the question "why" a certain action, phenomenon or event has taken place. In fact, the character of response to the "why" question

is not always uniform. It can take the form of a nomological-deductive explanation, a what-explanation, a purposive explanation, or a reason-giving explanation. We accept these explanations as appropriate in relation to a given explanation space. Our analysis has shown that any system of knowledge, in order to be relevant and perspicuous, must make use of different modes of explanation. Thus, if we accept objective truth as the aim of inquiry, then the humanistic disciplines must attempt to incorporate into their system of knowledge as much of the type of explanation paradigmatically used in the natural sciences. Our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system of knowledge in the natural sciences must make use of those explanations which deal with values and intentions. "Relativity" of the natural sciences and "objectivity" of the humanistic disciplines are merely two different aspects of the cognitive situation of man.